

제목: "직분의 감당하는 자"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13절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벌써 직분을 얻었거나 앞으로 직분을 받을 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직분을 영원히 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성도들은 직분을 받든 앞으로 받기 위하여 준비하든 직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받을 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1. 직분을 _____해야 합니다. (1절)
2. 양심에 믿음의 _____을 가져야 합니다. (8절)
3. 책망 할 것이 _____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0절)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니카라과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임철현/임윤실 선교사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김종현/김유경 선교사	선교사 파송 및 교회를 떠난 청년 사역(한국)
제이넵/젠기즈 사역자	터어키 현지인으로서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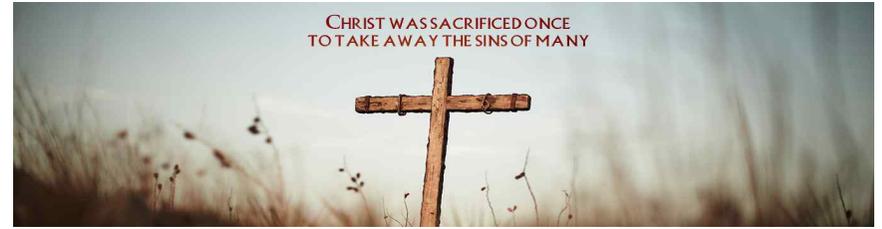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예레미야 11장 4절)
 "Let us obey our God" (Hebrews 12: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디모데전서 3장 1-13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1 Timothy 3: 1-13 신약 338 페이지 Presider
- 말씀 "직분을 감당하는 자"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447장) 이 세상 끝 날까지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일하는 목사님들)

요즘 한국에서는 한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사이에 고민이 생겼다. 실은 그 고민은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종직에 대한 이야기다. 그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는 목사의 돈에서 자유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분의 뜻은 교회에서 20만원을 받으면 20만원으로 살 수도 있고 100만원을 받으면 100원으로 살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목회 외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했다. 앞뒤를 다 듣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말은 더 깊은 뜻이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목사는 일을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주는 대로 만족하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한국 교회에서 논란이 되던 목사의 이종직에 대한 문제가 다시 뜨겁게 되었다. 물론 목사가 돈에 휘말리지 말고 돈에 연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유명한(?)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목사님은 “홍성사”라는 책을 발간하는 돈 잘 버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책을 많이 썼으며, 충분하고도 남을 사례를 평생 교회로부터 받고 살아가 은퇴한 사람이다. 그분은 이러한 것에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려운 목회자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어 기도만 하던 경험이 없고, 거할 집이 없고, 교회에서 지하 집을 빌려주어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연탄가스도 인하여 정박아가 되어 태어나는 일을 자신과 같이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수 십 년 목회를 해도 숫자가 늘지 않고, 달동네를 벗어나지 못하며, 목사로서 일을 할 수 없어 같이 신학교를 졸업한 헌신한 사모인 아내가 품팔이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주 작은 이야기일 것이다. 현실에서는 그보다 더한 못한 가운데에서 목회를 위하여 덕을 쌓기 위하여 가족이 찢어지게 가난을 품어 안으며 살아야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목사도 교회에서 도움을 줄 수 없으니 일을 해서라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때에 살고 있다. 그것이 전 세계에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은 믿음이 더 좋은 모양이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자신의 목사를 돕고 목회에 전념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자신들은 누릴 것을 전부 누리면서 목사에게는 돈에서 자유 하라며 살아갈 수 없는 액수의 사례를 한다고 한다면 그 목사는 엘리야의 까마귀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엘리야의 까마귀가 살아가기 위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몇 년 전 이종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다 보니 이전에 사무실에서 목회를 하던 35년이 다시 보였다. 그 당시에는 적지 않은 내가 받는 사례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받고 싶은 생각도 실은 있었다. 그런데 이종직을 통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 나의 사례는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고 목사가 모두 사업을 해서 교회를 재정적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주위에 어려움을 이기면서 자신의 사업이 아닌 직장에서 일하며 목회를 하는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든 좋은 줄은 몰랐다. 너무 어렵다. 쉬는 날도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지 혹사라도 돈을 벌기 위하고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 목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종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목사님들을 존경한다. 그들의 사모님들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그들은 대가를 받기 위하여 돈버는 직업으로 목회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주 늦게 그 차를 탔지만 수 십 년 동안 그러한 목회를 감당한 목사님들에게 상을 줄 수는 없을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목회를 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양쪽을 전부 경험해본 나로서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 할 수 있다.

나는 그 유명한(?) 목사가 하나님 앞과 목숨을 걸고 헌신하며 지금도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회개하기를 바랄 뿐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김예식 집사님과 최운서 장로님의 회복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이슬람 지역에 개척교회를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키기 현지인 목회자들의 도움이 잘 연결

김인선 선교사: 학교사역과 사무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1월 한글학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김중현, 김유경 선교사: 선교 동원사역 및 한국 청년사역 (교회를 떠난)

제이넵, 젠기즈 사역자: 터키기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7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씩 가지고 가서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결혼

김문홍 집사님 맥 장녀 7월 29일 Lake Oswego, OR

6. 7월 행사

목장 모임 7월 23일 주 중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